

악조건에도 韓 자동차 생산량 ‘세계 5강’... 친환경차 선전

코로나·공급망 악재에도 양호 수출 대수·금액 9년 만에 증가세 하이브리드차 수출 71% 급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계 자동차 생산 5위는 유지했다. 코로나19와 공급망 악재에도 선전했다는 평가다. 특히 친환경차 선전이 두드러졌다. 수출과 내수 차량 5대 중 1대 꼴로 친환경차가 차지했고, 그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 대수와 금액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 대비 생산은 -1.3%, 내수는 -8.5%로 감소한 반면, 수출 대수와 금액은 각각 8.6%, 24.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346만대로 전

년(351만대)보다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95만대와 비교하면 10%를 훌쩍 넘는 감소다.

하지만 주요국 자동차 생산순위는 지난해에 이어 5위를 유지해 악조건 속에서 양호한 실적이란 평가다. 한국의 자

동차 생산 순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2019년엔 7위였으나,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5위로 순위는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순위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인도다.

내수는 전년도 역대 최대 판매(189만대)에 따른 역기저효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한 173만대를 기록했다. 국산차는 친환경차 판매가 40.3% 급증했으나 출고 적체 현상으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42만9000대, 수입차는 독일계 브랜드 판매 증가로 2.0% 증가한 29만7000대를 판매했으나, 전년 증가율(9.8%)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수출 대수와 금액은 2012년 이후 9년 만에 동반 증가세로 전환했다. 자동차 수출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와 글로벌 시장 내 국내 브랜드 점유율 상승 등이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대비 71.0% 급증하는 등 친환경차 수출 대수가 대폭 증가(+50.0%)한 것이 전체 자동차 수출을 견인했다. 수출 금액은 친

환경차 수출 비중 증가에 따른 수출 품목 고도화로 전년 대비 24.2% 증가한 464억7000만달러로 2014년(484억달러)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의 20.1%를 차지했고, 전기·수소차는 사상 처음으로 10만대를 돌파한 10만5000대를 판매했다. 특히 전기차는 아이오닉5EV, EV6 등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내수 판매를 견인했다.

지난해 자동차부품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22.2% 증가한 227억8000만달러를 달성, 7년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北, 북한판 ‘에이태킴스’ 발사... 與 종전선언 무색

군당국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대북기조에 군 내부서 불안감 나와



북한 노동신문이 18일자 3면에 보도한 KN-24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KN-24였다. 에이태킴스는 목표를 향해 유도사격이 가능한 지대지미사일이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해, 범여권의 ‘종전 선언’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기관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전술유도탄은 북한이 지난 2019년 8월과 2020년 3월 시험발사한 KN-24와 동일한 형상이다. KN-24는 한반도 이남 전역에 대한 핵공격이 가능한 위협적 무기체계다. 최대사거리 500km 내외로 다른 탄도미사일에 비해 짧은 편이지만 핵탄두의 소형화를 거치면 핵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KN-24라고 탄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약 4분 간격으로 2발이 발사됐고, 비행거리 약 380km, 고도 약 42km로 탐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범여권의 눈치를 보는듯 한 인상을 보였던 군 당국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보에 대해 ‘위협’이라는 평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초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대한 ‘도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영해·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입장변화에도 정부를 비롯한 범여권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행사에 대해 애써 외면하려는 분위기다. 같은 날 통일부는 “전체적으로 자위권 부분보다는 발사 과정에 대한 설명에 치중한 형태”라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도 전날 NSC를 마친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 “북한이 올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만 밝혔을 뿐, 북한에 대한 경고

메세지는 전하지 않았다.

군 내부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범여권의 편향된 대북관이 군의 안보상황의식과 전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지휘관은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식의 강경론도 위험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화만을 주장하는 것도 군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며 “보수는 미국의 뒤에 숨어 경제만 돼지처럼 살찌우고, 진보는 자주국방이라며 고가의 무기체계를 사들일뿐 싸우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행보는 중국 베이징에서 2월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 전까지 이어졌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거친 후,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업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림픽 선수들이 입촌하는 이달 25일이 일주일 남은 상태여서 이 기간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3월 대선 직후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더 강도 높게 도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전자영수증·다회용기로 탄소 포인트 적립 받는다

19일부터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으면 100원, 배달 음식 등에 다회용기를 쓰면 1000원 등을 ‘탄소 포인트’로 받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일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정부가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인트 대상은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배달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 ▲기후행동 1.5도 앵 실천챌린지 참여 등 6가지다.

포인트는 회원 가입 후 하나 이상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할 경우 최초 5000원이 지급된다. 이후 각각 1회당 전자영수증은 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은 2000원, 다회용기는 1000원, 무공해차 대여는 5000원, 친환경상품은 1000원이 지급된다.

기존 그린카드 사용자는 친환경제품 구매시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대상별로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친환경상품은 각 1만원, 무공해차 대여는 2만5000원이다. 1인당 연간 상한액은 총 7만원이다.

다만, 기후행동 1.5도 앵 실천챌린지(연 4회)는 포인트 대신 참여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상장 및 상금으로 준다.

참여기업은 전자영수증의 경우 갤러리백화점, 롯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6곳이다.

세제·화장품 구매 시 빈 용기에 담아 오는 리필스테이션 7곳(아로마티카,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슈가버블, 에뛰드, 알맹상점, 외플), 다회용기 2곳(요기요, 경기도배달특급), 무공해차대여 3곳(쏘카, 그린카, 피플카), 친환경상품구매(그린카드 이용자) 등이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먼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소 잃고 외양간 안돼”... 전국 건설현장 집중 점검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순찰 강화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전국의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17일부터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주요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광주 붕괴 사고 대응반을 구성했고,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했다.

안중주 공단 이사장은 이날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과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원인에 대한 철

저한 조사와 전국의 건설 현장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지난 11일 화정아이파크 2단지 아파트 한 개 동 23~38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현재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공단은 또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5년간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이 지난 12일 올해 첫 1074개 사

업을 점검한 뒤 건설·제조업 599곳에서 1308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516개 현장에서 1158건이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미설치,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83곳에서도 방호 조치, 지게차 관련 150건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 1197억원을 마련했다.

안 이사장은 “광주 붕괴사고에 철저한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구조안전 자문단들이 크레인 이용해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소통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